

신행수기

시간속으로 달리는 시한폭탄 <하>

신선희 (43 · 경남 창원군)

아무도 없는 천공의 하늘아래 갓바위 부처님 기도처엔 풀부처 갓바위 부처님은 없었어. 4층 빌딩 높이의 키가 크고 잘 생긴 중후한 비구스님 한 분이 바로 그 자리에 무쇠 육환장을 짓고 장엄하게 서 계셨다. 7부까지 달는 회색 장삼 법의에 짙은 밤색 가사를 수하신 스님. 그분이 그대로 갓바위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도처엔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홀로 기도하던 곳에 당신을 향해 서 있었다. 그렇게 중후하고 장엄하신 큰스님은 손가락으로 갓바위 부처님이 앉았던 바로 그 돌 벽에 당신의 손가락을 하나 짚었다. 수도 꼭지 정도의 구멍이 났는데 맑은 물이 펄펄 나왔다. 큰스님의 '에야 이 물을 마셔라'는 자애로운 목소리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했다.

어디선가 아스라히 들려오는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에 잠을 깨었다. 잠깐 동안 구만리 꿈 속에서 나와 목같이 말하고 살아계신 갓바위 부처님을 아버지처럼 만났구나! 깨어보니 머리는 맑고 목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꿈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새벽예불 후 기도회향을 하고 창녕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오지 않는 원룸에서 호랑

이같이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날마다 들어오는 신문으로 하루를 나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금강경>에 오로지 의지할 뿐이었다. 겨울방학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계 수단까지 걱정해야만 했다. 살고 싶은 의욕이 머리카락 한 올 무게보다도 없었다.

썰렁하고 힘겨운 1998년 겨울을 보내고 99년 1월, 신문에 서울 모 영어교육회사에서 전국대도시 학습지 사업부 지국장 모집 광고가 났다. 부산 총괄지국장으로 응시를 했다. 서류와 시험, 면접을 통과하는데 한 달 넘게 소요되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출강해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했다. 자살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살리라 마음먹은 후 고향 땅을 등지고 긴 기다림 끝에 그곳의 합작투자자와 함께 팀장으로 연수생활을 원만히 마쳤다. 서울과 울산, 그리고 나의 목적이인 부산지역 국장으로 인사이드가 있었다. 새로운 지역 조직 경영자로서의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99년 늦은 봄이 지나고도 하일이 계속되었다. 서울 본사에 병가를 내고 부산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병원에 입원수술을 하기위해 창원 동네 아파트 인근 산부인과에 갔다. 병원장은 대학교 선배였으며 나의 병명과 기록을 흔하게 알고 있었다.

검사를 하고나자 병원장이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등에 사마귀 떨어져 나간 자리처럼 흔적만 있고 근육종양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그랬다. "아,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며, 제 1과부 터 5 과장까지 다 모여 '완치와 이상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그럼 왜 이따지도 아랫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었는지는 정상적인 성인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 괜찮을 정도로 연수생활을 원만히 마쳤다. 서울과 울산, 그리고 나의 목적이인 부산지역 국장으로 인사이드가 있었다. 새로운 지역 조직 경영자로서의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한 뒤였는데, 이렇 수가. 정말 내게 팔꿈신 갓바위 부처님이 그날 나의 기도에 감응하셨구나.

기도처에서 스님의 손가락으로 바위틈에서 나온 맑고 맛있는 물이 바로 나의 약물이었다는 신기함에 몸을 떨었다. 아이릴수가! 세상이 이런 기적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몸에서 완전한 병의 치유가 일어난 것이었다. 은행 부채가 너무나 괴로워 죽는 것이 더 행복하고 화평할 것 같았던 아픔의 기도가 팔꿈신 약사어래를 부처님께서 돈보다, 물보다,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나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구나. 한참을 가슴벅찬 기쁨으로 순수의 노래가 되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쓸어 내리고 어느새 얼굴은 투명하게 밝아졌고 눈동자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 이후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해서 산부인과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힘든 영아학원 근무를 접고 창원에 있는 대학에서

갓바위서 목숨건 기도... 병났고 일자리도 얻어



그림 · 김홍인

외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이기에 제를 보살님의 찬탄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수강생들에게는 영의 국제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선재동자의 <화엄경>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 때의 어려운 시련이 지금껏 기도 생활의 연속이고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사람살이가 순간순간 안정되어 화평하고 순수하고 여유했다. 아침마다 울리는 예불과 다라니 300독, 기도를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과정이 행복 그 자체였다.

창녕을 떠난지 어느덧 10년.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세상 속에 빛진 것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옛터에 돌아와 날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행복이란 아등비등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알았다.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귀를 원한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술한 날의 회한의 눈물과 잠회의 통곡과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 교훈이었다. 살아만 인생학교에서 우등생의 공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

부국 국립병원에 있는 약제과의 범우는 정신병자의 최고의 명약인 '안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침착하고 발원하면서 궁극엔 나 자신도 선재동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관세음보살님께 두 손 꼭게 모으고 합장합니다.

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다. 수술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파타미 주치의는 신기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궁내막의 근육종양은 사라졌고 부위는 깨끗하며,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일이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오는 현상임으로 호르몬 제제를 먹도록 권유하며 주사만 맞고 기본종제 돌아왔다.

두 번 다시 병원에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

킬레이 수행일기 <하>



신택환 소설가 · 한국문협이사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어머니 생각이 났다.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임종 전날 기독교도인 집주인의 꿈에 나타나서 "나, 이제 금강산에 간다"고 알려주고 이 명칭한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하신 어머니. 그분의 명복을 빌어야 했다.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산사를 찾으리라. 소리 높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먹고 마을 뒤에 새로 생긴 절의 신도로 등록했다. 아니 이름 없는 거사로 남고 싶었다. 전과 달리 봉사에 마음을 두고 절 마당 잡초도 뽑아주고 보살들이 하는 허드렛일도 거들어주고 신도들을 따라서 성지 순례도 했다. '절 한 평 갖기 운동'을 한다고 외상으로 절에 회사를 약속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불사라면 마음과 재물을 아끼없이 던지는 그들이 부러웠다. 그야말로 복을 받고 불을 입는지, 그들은 대체로 부유하였고 하는 일이 무사무난하였다. 나도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제행무

달하면 지혜를 깨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음의 지혜는 원만하고 무궁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 없는지 회두처럼 입에 올리고 생활하였다. 벽에 그려진 심우도(心牛圖)를 보며 진리를 찾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상사하였다. 얼마나 힘들고 고난에 찬 길인데 나와 같이 천박한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워진다.

게송 · 경전 읽으며 마음속 심수도 그려 생활속에서 '진리' 찾아 매일 회향 다짐

상을 말과 글로만 이해하지 않고 행으로 뜻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으랴.

불서를 사들였다. 한글판 <팔만대장경>도 다시 읽고, 한용운 편 <불교대전>도 읽었다. <반야심경>도 외우고 해설서도 보고 꼼꼼히 노트를 하면서 읽었다. '법성계(法性界)'도 외웠다. '무상계(無常界)'를 외우며 삶과 죽을 경계를 넘나들었다. <금강경>도 읽고 읽는 옛터에 돌아와 날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행복이란 아등비등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알았다.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귀를 원한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술한 날의 회한의 눈물과 잠회의 통곡과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 교훈이었다. 살아만 인생학교에서 우등생의 공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

부국 국립병원에 있는 약제과의 범우는 정신병자의 최고의 명약인 '안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침착하고 발원하면서 궁극엔 나 자신도 선재동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관세음보살님께 두 손 꼭게 모으고 합장합니다.

그러나 길을 찾지 않아야 하고 영혼의 구제를 받기 받아야 하는데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보다는 내 생활 속으로 불교를 깊이 끌어들이자. 생활불교, 아침 저녁으로 분향 독경하고 절을 한다. 불당은 아니지만 방안에 부처님을 한 번 모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보다 잠시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금강경>도 읽고 읽는 옛터에 돌아와 날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행복이란 아등비등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알았다.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귀를 원한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주변에 불자는 많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기복신앙에 젖어있다. 이런 말도 구입을 쌓는 일이 된다면 어쩔 수 없다. 남을 욕하지 않고 좋은 얼굴로 대하고... 그런 소극적인데서 좀더 적극적인 데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직도 마음이 어렵다.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잠에서 깨어나 문득 문득 일어나는 생각이 회두이다. 선어록에서 읽은 구절의 실체가 눈앞에 선연하다. 나도 그래야지, 그러나 생각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원통관음(圓通觀音)은 범어사 경내를 거닐다가 눈에 들어온 한 구절, '동글고 통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연중 점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위(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yhy@buddhapia.com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분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렌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 1,000부 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양 가능)
- * 각 사찰카렌다 특권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 (02)2277-0304
 FAX: (02)2268-6732
 Homepage: www.wonil-c.co.kr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영블,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종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북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적 다이어트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다이어트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락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프레이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특 원 (팔보 효소)